

◇ 서 평

李春寧, 「한국農學史」, 民音社, 1989

문 중 양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우리나라 전통농업기술의 연구가 황무지상태였던 때인 1964년에 「李朝農業技術史」를 저술함으로써 처음으로 우리나라 농업사를 체계화했을 뿐 아니라 조선시기 농업기술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 내었던 李春寧 교수가 25년만에 고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역작을 펴냈다. 한국의 과학기술사 연구에서 걸음마단계에 있는 평자에게 「이조농업기술사」는 농업사 연구의 길잡이였었는데 이번의 「한국農學史」는 농업사를 과학기술사적인 입장에서 정립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평자의 앞으로의 연구에 하나의 접근법을 제시해 주었다.

저자가 책머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통농업의 과제를 살펴보는 데에는 여러가지 각도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크게 보아서 분야사로서 농업기술의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하나이고, 농업사회로서의 전통사회의 발전의 틀을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통해서 고찰하는 것이 또 하나이다. 이러한 두가지 접근법이 융합 조합된 농업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저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저자의 「이조농업기술사」는 비록 농업기술의 변천과정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통사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시도로서 이후의 농업사 연구를 자극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이춘녕 교수는 「이조농업기술사」에서 조선시기의 농업사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초기(1392~1567)에는 「農事直設」(1429)을 통하여 1년2작, 2년3작, 1년1작으로 作付方式이 행해졌고, 水田에서는 水耕, 乾耕, 插種의 세가지 耕種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독특했던 것은 乾種法이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농사직설」, 「훈몽자회」 등의 문헌에서 농기구들을 살펴보고 농기구에 鄉名이 붙여진 사실을 우리나라 풍토에 맞도록 농기구가 개량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중기(1568~1724)에는 「農家集成」(1655)을 통하여 이앙법이 실시되었고, 棉作의 專業化현상이 있었음을, 조선후기(1725~1863)에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이 전래되어 재배된 사실과 인삼을 家蓼으로 재배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농경기술의 변천을 통하여 이조산업사의 일부를 살피고자 하는 小論”이라는 저자 자신의 한계설정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사가들에 의해서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생산력의 내재적인 발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은 본질적이기까지 했다. 1960년대는 한국역사학계가 일제관학자들의 ‘조선사회 停滯性論’을 극복하고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일제관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전기에 「농사직설」과 같은 농서를 편찬하는 등 조선의 실정에 알맞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려는 노력이 행해졌지만, 그러한 노력과는 달리 조선의 농업기술은 기본적으로 진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조

선사회의 농업생산력이 정체되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선사회는 자력으로 근대화할 수 없었고 외래자본주의의 유입에 의해 가능하다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가져다 주었다.

해방후 50년대까지의 한국의 농업생산력 연구도 일제시기의 정체성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조선사회 농업생산력의 정체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60년대 초반 민족사학론자들의 주도로 시대구분 논쟁, 자본주의 맹아론이 제기되었으며, 그러한 논의는 조선사회는 내재적으로 발전했었다는 시각에서 조선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연구하도록 하는데 자극이 되었다. 조선시기 水田농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水利문제를 다룬 李光麟의 「李朝水利史研究」(1961)와 이춘녕의 「이조농업기술사」가 연구의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농업기술의 변천과정에 치중했던 이춘녕의 연구는 고대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농구가 현존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시의 농기구에 경탄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현 조선농업기술의 정체성이 어느 곳에 그 원인을 두었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바로 이춘녕의 이러한 견해가 농업생산력의 내재적인 발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회경제사가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이후 조선농업사 연구는 이춘녕의 여러 편의 작은 논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회·경제사가들에 의해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60년대 농업생산력 연구를 통해 조선사회가 내재적으로 발전하였음을 검증한 金容燮은 水田과 旱田 모두에서 농업기술의 발전은 노동력의 절감 및 수확량의 증가라는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고, 그러한 농업생산력의 내재적 발전을 바탕으로 조선후기의 사회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金용섭에 의해 마련된 농업생산력 연구의 체계화는 70년대, 80년대의 閔成基, 李泰鎭, 李鎬澈, 그리고 金榮鎭 등에 의해서 양적, 질적으로 발전되었다.

그동안 연구가 진행된 농업기술사의 성과를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재배작물의 연구, 재배기술의 연구(水田作法과 旱田作法, 施肥기술, 木棉재배기술, 양잠기술 등), 水利기술의 연구, 그리고 農器具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연구성과에 의한 조선시기 농업기술의 발전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전농업의 발전은 파종법이 직파법으로부터 이앙법으로 이행되었고, 한전농업에서는 파종법의 정착화에 따른 작부방식의 고도화와 상품작물의 지배를 통한 경영변화로 요약된다. 한편 시비법에서는 비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시비방식이 基肥法에서 追肥法으로 치중됨으로써 발전하였고, 농기구에서도 작업과정에 따라 농기구의 종류가 다양하고 정밀하게 분리되는 추세였다는 것이다.

현대과학으로서의 농학을 전공한 이춘녕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농업기술사의 체계화 시도는 이와같이 사회·경제사가들에 의해서 양적·질적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성과로 이어졌다. 현재 조선시기 농업생산력 연구의 과제는 크게 농업지대의 분석, 농업경영양식의 해명, 그리고 농업생산력 발전의 주체에 대한 설정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조농업기술사」에서와 같은 체계적인 농업기술사의 서술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발전된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한국과학사를 전공하려는 평자에게 이번의 「한국농학사」는 더욱 의미있는 저서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농학사」는 몇가지 점에서 「이조농업기술사」에서 더 나아갔다. 먼저 과거의 저서에서는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했던 조선농업생산력의 정체성이라는 시각이 이번의 「한국농학사」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모는 과학이론으로서의 농학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농업사를 재서술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경험과 전승으로 이루어진 技術보다 理論과 思考의 차원인 農學의 발전에 주목한 결과 조선시기 동안 주체

적이고 발전적인 농학적 과학정신을 정리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농학사」서언에서 나타난 저자의 견해에 의하면 조선시기 동안 중국농서의 간행, 번역, 개편이 잇따랐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官撰 및 私著인 농서들이 간행 또는 집필되었다 한다. 저자는 특히 실학풍조의 성숙과 함께 실학자들의 農政論이 농업기술과 아울러서 대두하였는가 하면 小百科를 겸한 광범위한 농업기술서가 등장했음에 주목했다. 또한 조선후기에 도입·재배된 고구마·감자·옥수수 등의 재배기술서적들의 등장을 지식인들의 구황작물에 대한 관심이 외래작물의 실험, 관찰 그리고 인과의 탐색으로서 표출된 농학적 과학정신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저자의 조선후기 농서에 대한 이와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조선시기 농서의 거의 대부분을 고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조선전기의 「농사직설」, 「금양잡록」, 「양잠경험촬요」, 조선중기의 「반계수록」, 「농가직성」, 「색경」, 「산림경제」, 「농가월령」, 그리고 다수의 구황서적들, 조선후기의 「진북학의」, 「과농소초」, 「임원경제지」 등 조선시기 농서를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실로 조선시기 농학이론의 체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경제사가들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한다. 이론과 사교의 차원에서 정부와 지식인층에 의해서 간행된 수많은 농서와, 실학자들의 독자적 농학이론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조선사회가 식민지화되는 시기에 조선의 전통농학이 완전히 단절되고 서구의 근대적 농학으로 대체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의 미흡으로 이어진다. 한국농학사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준 노학자가 남겨놓은 이와같은 연구과제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주는 숙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